

자비도량 참법기도 익산 관음사 2년간

부처님 출가·열반 특별 정진 기간을 맞아 익산 관음사(주지 덕립)가 매월 3일씩 2년 동안 자비도량 참법 기도를 입재했다.

부처님 출가와 열반의 의미를 되새기며 발심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정진기간동안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잘못을 자신의 허물로 삼아 참회하고 모든 중생의 죄와 업장 소멸을 기원하는 자비도량 참법기도를 봉행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익산 관음사는 이를 계기로 2년후 회향을 목표로 매월 음력 8~10일 3일동안 자비도량참법으로 기도 정진할 예정이다.

법회를 주관한 덕립 스님은 "비교적 심신이 약한 지역 특성을 감안해 부인이후 법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민해왔다"며 "이번 출가·열반절 특별정진을 계기로 익산 불교의 중심 전법도량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완주 안심사 대웅보전 복원

전남 완주군 30억원 들여 2011년까지 복구 계획 밝혀

한국전쟁 때 소실됐던 천년고찰 완주 안심사 대웅보전이 복원된다.

전남 완주군(군수 임정엽)은 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1년까지 안심사 대웅보전을 복원한다고 3월 2일 발표했다.

복원되는 안심사 대웅보전은 정면 5칸, 측면 4칸 172㎡의 중층 규모다. 완주군은 이를 위해 2008년 2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것을 비롯해 올해 7억원 등 총 9억원의 국비를 확보했고,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5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문화재청의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 내에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안심사 대웅보전은 서기 638년(신라 선덕여왕 7년) 자장 율사(藏



전남 완주군이 30억원 사업비를 들여 2011년까지 복원할 완주 안심사 대웅보전터.

藏律師)가 부처님 진신사리 10과와 치아사리 1과를 봉안해 창건했다. 수차례 중수과정을 거쳐 한국전쟁 직전까지 30여채 전각과 13개 부속 암자를 갖춘 대규모 사

찰이었으나 한국전쟁 당시 1950년 10월 국군이 철수하며 모든 전각과 암자를 소각해 다수의 전각 등이 소실됐다. 현재는 1991년 적광전, 산신각, 약수암이 복원돼

있다.

특히 만해 한용운 선사의 '명찰 순례기'에 대웅보전 2층에 658판의 한글 언해본 대장경이 보존돼 있다고 기록돼 있으나, 이것 또한 한국전쟁 당시 사라졌다.

문화재로는 보물 1434호 안심사 제단과 안심사 부도(전북도 유형문화재 109호), 안심사 사적비(전북도 유형문화재 110호)등을 보유하고 있다.

안심사 주지 일연 스님은 "2003년 부임한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안심사 대웅보전 복원을 기원했다"며 "안심사는 우리 민족의 큰 자산인만큼 대웅보전 복원불사를 기점으로 불교문화의 계승발전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우리지역 부부나혼자 심향사 문수보현회 최일광 회장

“봉사와 나누는 삶으로 회향하고자”

한국이 경제위기와 더불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독거노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지 오래다. 이런 가운데 나주 지역에서 5년째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말반찬을 배달하는 심향사(주지 원광) 문수보현회 최일광(59·법명 선지행·사진) 회장을 만났다.

문수보현회는 심향사 봉사단 소속으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나주시부 심향사회회 등 특목 단체이다. 2005년부터 매주 월요일 나주



임도 진행중이다. 나이 드신 신도주인인 무량공덕회는 사찰의 입들을 주로 맡고, 젊은 신도가 주축인 초록미타회는 주 1회 복지관 목욕봉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이런 작은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자 심향사는 반야종합사회복지센터의 건립을 목표로 최근 장기요양기관인 반야노인복지센터를 개원한데 이어 반야사회복지연구소 설립도 추진 중이다.

문수보현회와

시 금남동, 성북동, 금천 노안면 일대 20여 가구에 말반찬 배달을 하며 지역민들의 신임도 두텁다.

“처음에는 부처님의 배움을 실천으로 옮겨보려겠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타 종교인을 포함해 많은 신도들이 후원과 봉사에 참여하고 있고, 특히 어린이들도 후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수보현회가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할 때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반찬의 종류 선정부터 재원을 모으는 일, 봉사자들의 역할과 화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일 등 고민꺼리도 많았다.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한 것은 주지 원광 스님. 최 회장을 비롯한 문수보현회 회원들은 “주지스님의 적극적인 후원이 있어 오늘의 문수보현회가 유지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심향사는 신행단체별로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신도회 실무자들로 구성된 봉사위원회가 있어서 수급대상자 선정과 재정 등을 공동운영하는 것도 문수보현회만의 운영 노하우다.

또한 심향사에는 다른 봉사모

집행사의 오늘이 있기까지 최일광 회장의 활동도 돋보였다. 봉사하는 자리에는 절대 빠지지 않는 약바리였기 때문. 공직에 있는 남편과 시어머님을 모시고 2남1녀 가족 뒷바라지에도 힘이 부칠 듯한 그녀가 지금처럼 봉사에 뛰어든게 한때는 큰 계기가 있었다.

“백양사 서용 큰스님 열반을 지켜보면서 큰 감명을 받았습다. 특히 좌탈입망하신 큰스님을 친견하고, 다비식에 참여하면서 크나 큰 환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용 스님의 다비 이후 최 회장은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고자 발원했다.

“젊은 때는 꿈을 실천하지만, 나이가 들다보니 봉사와 나누는 삶으로 회향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장학사업으로 지역 동량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오늘도 나눔을 통한 수행을 계속하고 있는 최일광 회장은 “포교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와 가족에게 봉사하고, 주위 사람들과 같이 봉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바르고 맑은 세상’ 인터넷 불교신문 창간

전남 화순 지역 불교정보를 갈무리 할 인터넷 불교신문 ‘바르고 맑은 세상’(발행인 무진)이 창립됐다.

‘바르고 맑은 세상’은 3월 2일 전남 화순읍 신기리 소재 태고종 정토선원(주지 무진)에서 은 무봉 스님(학현사 주지), 지공 스님(도선사)과 김실 화순군의회 의원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봉헌식을 봉행했다. 지공 스님은 인사말에서 “불교를 실천하는 이 자리가 부처의 자리요, 자비와 광명이 빛을 발하는 자리”라며 “인터넷 불교신문을 통해 부처의 바른 진리를 실천하는 좋은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무진 스님은 발행사에서 “인터넷 신문은 불교정토를 지향하며, 사회의 목탁과 죽비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발행 의미를 설명했다.

이날 봉헌된 ‘바르고 맑은 세상’은 지공 스님이 회장, 무진 스님이 발행인, 탁자섭씨가 편집국장을 맡았다. 송선숙 기자와 최상률 기자가 각각 불교계와 화순지역의 소식을 전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봉사, 가족과 함께 해요”

광주 덕림사 선재가족봉사단 창립

세상이 어려워수록 더불어 사는 삶이 강조되는 때다. 광주 덕림사(주지 무이)에서 개인 혹은 사회단체별로 행해지던 봉사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끈다. 가족을 봉사활동 주제로 삼아 지역사회 돕기에 나선 것.

광주 덕림사는 2월 28일 대웅전에서 선재가족봉사단(단장 윤혜숙) 발대식을 갖고 42개 가족 100여 명 회원들이 지역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들어갔다.

무이 스님은 인사말에서 “봉사는 나누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라며 “여러 봉사자의 신행 활동 경험 바탕으로

로 자율적인 봉사활동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재가족봉사단은 매월 2회 놀토마다 집중적으로 가족단위의 봉사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매주 목요일에는

행사를 통해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관계자들은 자긍심과 목표의식을 함양하고 템플스테이운영 비전과 체계 마련을 통해 개별 사찰정책에 부합하는 목표를 설정할 예정이다.

‘신나는 템플스테이’ ‘안아주는 템플스테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문화축전의 주요행사로 템플스테이 학습제를 통해 템플스테이 활성화 방안과 논문 매뉴얼 소개 후 상호 토론회를 개최하고 스님과 운영실무자들이 프리허그(Free

템플스테이 문화축제 연다

김제 금산사에서 3월 27~29일

전국 87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의 스님과 실무자, 자원봉사자 500여 명이 참가하는 ‘제1회 템플스테이 문화축제’가 3월 27~29일 2박3일간 전북 김제 금산사에서 개최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주최하고 금산사가 주관하는 템플스테이 문화축제는 운영사찰간의 상호 정보 교류와 운영 실무자들의 사기진작과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를 통해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관계자들은 자긍심과 목표의식을 함양하고 템플스테이운영 비전과 체계 마련을 통해 개별 사찰정책에 부합하는 목표를 설정할 예정이다.

‘신나는 템플스테이’ ‘안아주는 템플스테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문화축전의 주요행사로 템플스테이 학습제를 통해 템플스테이 활성화 방안과 논문 매뉴얼 소개 후 상호 토론회를 개최하고 스님과 운영실무자들이 프리허그(Free

Hug), 동반 트래킹, 신나는 템플스테이를 위한 세미나 및 토론회, 운영프로그램 시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또 각 사찰별 홍보부서도 마련하고 사진전과 동영상 상영, 전통사찰음식 체험, 예쁜 명함 컨테스트, 우수사찰과 실무자들의 시상식 등을 통해 개별 운영사찰의 주요프로그램을 시연하고 토론회도 가질 예정이다.

행사 마지막 날에는 무차토끼를 마련해 사전 설문조사와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상호토론을 통해 개선점을 찾아내고 템플스테이 운영에 반영하게 된다.

집행위원장 일각 스님(금산사 템플스테이 팀장)은 “이번 문화축제는 운영사찰의 스님과 실무자들의 열린 평가를 통한 사기진작과 정보 교류에 의의가 있다”며 “템플스테이의 활성화 방안과 발전방안, 목표표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063)548-4442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특정 가법고 설치가능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원터치 연등걸이 핀

SMD LED전구(정품)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LED전구 (정품)

-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법당용, 외곽용
- ▶ 필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 ▶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 (정품)

-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 종류 : 3W, 5W, 10W
- ▶ 특 필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등 (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군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 선 시 공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